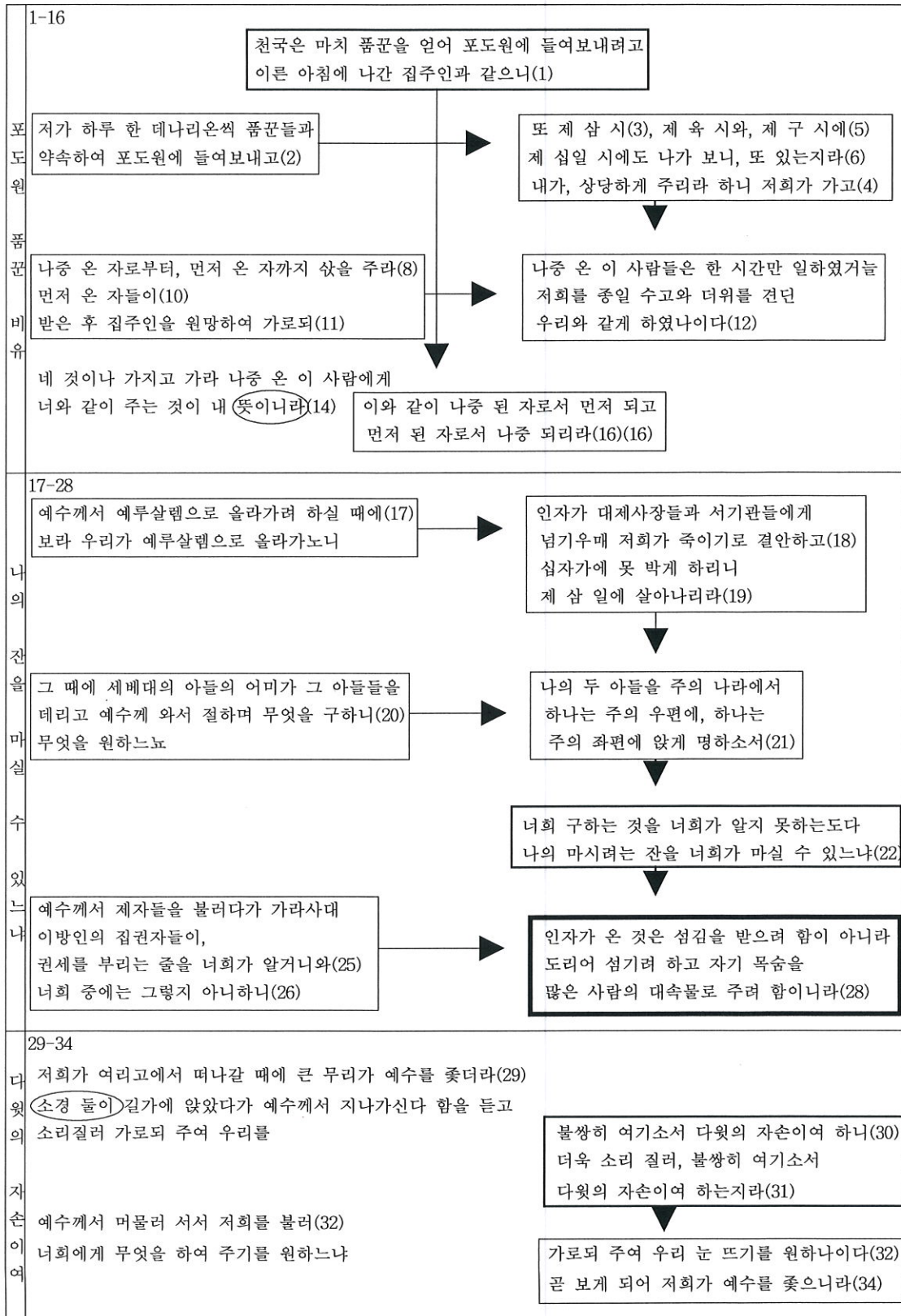


마태복음 20장 개관도표  
주제 :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

요절 :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의 중심점은,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8)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19:1)에 이르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17)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2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행보(行步)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또 수난 예고(18-19)를 하십니다. 이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첫째 단원)는, 19:2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품꾼이 일을 하고 품값을 받듯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좌우에 앉게 해 달라(둘째 단원)고 구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여리고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셋째 단원) 하고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6) 포도원 품꾼 비유

둘째 단원(17-28)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셋째 단원(29-34)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첫째 단원(1-16)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1), ①, 18장에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23) 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2)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의도에서 천국을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셨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품꾼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듯 하는 양 생각(19:27)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27) 하고, 조건부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②, 주님은 이를 시정해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 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2), “이른 아침, 제 3시, 제 6시, 제 9시, 제 11시”,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들여보낸 자들과는 “한 데나리온”(2)의 약속을 했으나, 다른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4) 하고 처분만 바라기로 합니다.

③, “제 십 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9-10) 합니다. 이는 노동논리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12) 하고, “집 주인을 원망”(11)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